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 도 자 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<b>한국판뉴딜</b>
	배포일시	2021. 9. 7.(화) / 총 7매(본문3, 참고4)	
담당 부서	국제협력 통상담당관	담 당 자	• 과장 오공명, 사무관 손현경, 주무관 이강민, • ☎ (044) 201-3306, 4739
보 도 일 시		2021년 9월 8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7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한-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한자리에 7일부터 한-아세안 교통협력 포럼... 상생방안 논의

□ 우리나라와 동남아국가연합\*(아세안 ASEAN, Association of South-East Asian Nations) 10개 회원국\*\*이 한자리에 모여 **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열기 위한 지속가능한 상생의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.**

\* 2020년 기준 우리의 제2의 교역대상(1,438억불)이며, 한국의 주요 방문대상국 (韓→아세안 181만여명, 아세안→韓 46만여명)

\*\* 브루나이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

○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**코로나-19 극복을 위한 각국의 교통정책을 공유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-아세안 교통협력 포럼을 9월 7일(화) 동대문디자인플라자(DDP)에서 비대면방식\***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.

\*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발표자만 현장에 참가하는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

□ **한-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은 아세안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 한다는 미래 비전 아래 지역 내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연결성(Connectivity)을 증진하기 위해 ‘10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,**

○ **아세안에 한국의 우수 교통정책·기술과 관련 프로젝트를 소개 하고 아세안 10개국 고위공무원 등과 비즈니스 상담을 제공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해왔다.**

- 이번 포럼은 코로나-19로 인한 비대면 확산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달라진 글로벌 시장 환경에 맞춰 “코로나 19에 대응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교통 정책”을 주제로 열렸으며,
  - 특히, 비대면이 새로운 기준이 된 코로나 시대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핵심 동력으로 전세계적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는 첨단·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교통·물류정책과, 동반성장을 위한 교통연결성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.
-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상을 통한 개회사에서 “이번 포럼이 첨단·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 경험과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”라며,
  - “한·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-아세안의 관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희망한다”고 밝혔다.
  - 이어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치이앵 피치(CHHIENG Pich) 국장 겸 아세안 고위급 교통회의(STOM, Senior Transport Officials Meeting) 의장, 박재경 외교부 아세안국장이 영상을 통해 환영사와 축사를 전했으며,
    - 오재학 교통연구원장이 ‘COVID-19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한-아세안 교통협력 증진방안’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.
  - 본격적인 포럼에서는 국토부 김배성 물류정책과장이 코로나-19 극복을 위한 한국판 디지털 뉴딜 대표 과제인 스마트 기술기반 물류시스템 구축을 소개하였으며, 아세안 10개국 교통부 국장급 대표단의 코로나-19 대응을 위한 교통정책 방향 공유 등 국내외 인사 약 200여명이 온라인을 통해 열띤 분위기에서 논의를 펼쳤다.

- 이와 함께, 국토교통부는 9.6일부터 1주일간 온라인으로 아세안 교통공무원 초청연수 행사를 진행중에 있으며, 철도·물류·ITS 및 토지보상 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해 아세안 국가별 교통부처 실무 공무원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.
  - 이번 연수에서는 각 분야의 최신 동향·신기술 강의 및 온라인 시설 견학 프로그램과, 아세안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토론·정책개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다.
  - 아세안 교통공무원 초청연수는 우리의 우수 정책·기술 및 국가 발전 경험 등을 공유하고 전파함으로써 아세안 국가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'11년부터 매년 관계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대면으로 진행하여 왔으나 코로나-19로 올해는 동영상 강의와 실시간 화상 세미나로 진행하게 되었다.
- 국토교통부 김헌정 정책기획관은 “코로나-19 이후 교통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아세안 회원국의 관심이 매우 높아 아세안 회원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”고 전하고,
  - “앞으로 한국의 디지털뉴딜 경험과 성과를 아세안과 공유하고, 도시 공동물류, 스마트 기술 기반의 물류시스템 기술 등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어 아세안 국가의 코로나-19 극복은 물론 우리기업의 아세안 국가 진출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  - 또한 “아세안 각국 연수생이 제안하는 맞춤형 정책모델을 기반으로 더욱 혁신적인 협력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손현경 사무관(☎ 044-201-330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참고 1

## 제11차 한-아세안 교통협력 포럼 프로그램(안)

시 간		프 로 그 램	
14:00-14:30	30'	포럼 참가자 등록, 영상회의 점검	
14:30-14:50	20'	개회식	개회사 (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)
			축사 1 ( CHHIENG Pich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종합물류국장, ASEAN STOM 의장)
			축사 2 (박재경 외교부 아세안국장)
			주제영상 "COVID19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교통 정책"
14:50-15:00	10'	기조연설: COVID-19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한-아세안 교통협력 증진방안 (오재학 교통연구원장)	
15:00-15:15	15'	사진촬영 및 휴식	
15:15-16:15	60'	세션 1	COVID19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교통 정책 (김홍석 서울대학교 교수)
			발표1 한국의 디지털뉴딜 및 물류정책 (김배성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)
			발표2 아세안 5개 국가 코로나19 대응 교통정책 발표 1
			질의 및 답변
16:15-16:30	15'	휴 식	
16:30-17:30	60'	세션 2	한-아세안 교통협력 로드맵 (김홍석 서울대학교 교수)
			발표1 교통협력 사업 연계 계획 (진광성 교통연구원 연구위원)
			발표2 아세안 5개 국가 코로나19 대응 교통정책 발표 2
			질의 및 답변
17:30-17:45	15'	한-ASEAN 교통협력 포럼 회의록(잠정안) 채택	
17:45-17:50	05'	폐회식	폐회사(오공명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)

## 참고 2

## 아세안 교통공무원 온라인 연수

- (기간) '21.9.6.(월) ~ 9.10.(금)(5일간)
  - (대상) ASEAN 회원국 실무급 공무원 약120명(과정별 30명)
  - (목적) 철도·물류·ITS·토지보상 등 4개 분야 연수를 통해 우리 우수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, 아세안과 경제협력 기반 강화
  - (내용) 공통(ODA)·분야별(철도·물류·ITS·보상) 과정으로 구분하여 영상 강의(이론·현장견학), 실시간 세미나(포럼, 퀴즈, 질의응답, 토론 등) 병행
    - 공통과정으로 ODA 자금을 활용하는 사업화 연계가 가능토록 사업제안서(Project Proposal)를 직접 작성하는 액션플랜\*도 시행
- \* 연수생이 자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ODA 사업제안서를 사전에 작성하고, 전문가 1:1 자문을 통해 수정·보완하여, 향후 ODA 사업으로 제안 검토

### 【 주요 프로그램 및 일정(안) 】

구분	프로그램	내 용
공통 과정	국제개발협력 (ODA)의 이해	한국의 국제개발협력(ODA) 사업 소개 액션플랜 : 사업제안서 작성, 발표·공유 등
분야별 과정	철도 정책 및 안전	한국의 철도 운영 및 개발, 철도차량·용품·시스템 기술, 철도 운영 및 안전 등 교육, 철도 인력양성
	물류 정책 및 기술	물류 인프라 건설 및 운영·관리, 스마트·자율주행· 자동화 물류,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(NLIC) 운영 등
	지능형교통체계 (ITS)	한국의 대중교통/ITS 정책과 기술 사례, 도시교통운영 정책 및 전략, 자율주행 및 C-ITS 등 첨단기술 현황
	토지보상	한국의 보상업무 체계 및 사례, ICT 기반 토지보상 실무, 아세안 연계성사업과 보상제도 등

구분	1일차	2일차	3일차	4일차	5일차
세션1	오리엔테이션 (실시간, 공통 2)	분야별 강의① (이론2, 현장1)	분야별 강의② (이론2, 현장1)	분야별 강의③ (이론2, 현장1)	액션플랜③ (실시간)
세션2	액션플랜① (실시간)	교통협력포럼 (실시간)	스마트시티엑스포 (실시간)	액션플랜② (실시간)	수료식 (실시간)

## 1. 일반사항

- 명칭 : 동남아국가연합(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)
- 창립일 : 1967. 8. 8.
- 회원국(가입연도) : 브루나이(94), 캄보디아(99), 인도네시아(67), 라오스(97), 말레이시아(67), 미얀마(97), 필리핀(67), 싱가포르(67), 태국(67), 베트남(95) ≡ 총 10개국
- 대화상대국 : 한국, 중국, 일본, 러시아, 미국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, 인도, EU (총 10개국, 국제기구 제외)

## 2. 주요 지표 (2019년 / 출처 : 외교부)

- 인 구 : 약 6억6천만명
- 면 적 : 448만km<sup>2</sup>
- GDP : 3조 1,731불
- 총교역량 : 3조 5,608억불(수출: 1조 8,496억불/수입: 1조 7,112억불)

## 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- 한·ASEAN 관계 발전
  - 1989.11 부문별 대화관계 수립
  - 1991.7 완전대화상대국 관계로 격상
  - 1997.12 제1차 ASEAN+3 정상회의 및 제1차 한·ASEAN 정상회의
  - 2004.11 「한·ASEAN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」 채택
  - 2009.3 한-ASEAN 센터 설립
  - 2009.6 한·ASEAN 특별정상회의(제주도)
  - 2010.10 「한·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」 채택
  - 2012년 주ASEAN 상주대표부 설립
  - 2014년 한·ASEAN 특별정상회의(부산)
  - 2017.5월 ASEAN 특사, 인도네시아·필리핀·베트남 파견
  - 2017.9월 아세안 문화원 개원(부산)
  - 2017.11월 신남방정책 천명 및 「한·아세안 미래공동체 비전」 발표

- 2019.11월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2019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-메콩 정상회의 개최(부산)
- 2020.11월 신남방 플러스정책 “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공동체” 발표
- 한·ASEAN 교역액('19년) : 1,537억불(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지역)
- 대ASEAN투자('19년) : 95.5억불(제3위 해외 투자대상지역, 신고기준)
- 대ASEAN 건설수주액('19년) : 80억불(우리 제1위 건설수주 시장, '19년기준)
- 방문객('19년) : 한국→ASEAN 약1,005만명, ASEAN→한국 약270만명

#### 4. 국토교통 관련 업무

- ASEAN 교통장관회의(ASEAN Transport Ministers Meeting, ATM) : 매년 개최 ('17년 싱가포르, '18년 태국, '19년 베트남, '20년 브루나이, '21 캄보디아)
  - 지역내 교통연결성 확대, 운송시설의 효율성과 능력 증강, 인적자원 능력배양 및 민간분야와 협력 강화, 안전하고 친근한 수송 시스템 육성 등 논의
- 고위급(Senior Transport Officials Meeting, STOM) 회의
  - 교통장관회의(ATM) 결정사항 검토·조정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국·과장급(STOM) 회의 개최(연 2회)
  - \* 필요시 세부 분야별 협의를 위해 실무(Working Group) 회의 개최
- ASEAN 공무원 초청 연수(매년)
  - 분야: 철도, 물류, 도시교통(ITS), 토지보상 4개 분야('19년 기준)
  - 대상: ASEAN 10개 국가 공무원 (1개 국가당 12명, 과장당 3명)
- 한-ASEAN 교통협력 포럼(매년)
  - (목적) 우리의 우수한 도시 교통·물류 및 교통인프라 정책과 아세안 주요 국가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, 협력 방안 모색
  - (참석) ASEAN 10 개국 차관급 및 국장급 20명 등